

#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동력 확보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교육추진

##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마무리

무주군이 추진 중인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3일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협의가 지난 2일 최종 완료됐다.

이는 전담팀 신설과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등 무주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무주군은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재원은 2025년 공모를 통해 확보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인 군비 184억 원이다. 개인별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무주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인 무주군 부군수는 "이제 무주형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실행을 통해 이른 시일 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절차다. 이번 협의는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공식성과 정책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 여부를 기본소득을 수급자의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12월 18일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협의 자료를 제출한 이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승인받았다"며 "쟁점 안전 처리에 통상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성과"라고 설명했다.

무주군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수시로 협의하며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정책임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기본사회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무주군은 이번 협의의 완료를 계기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모델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 숲해설·유아숲 교육 산림복지전문업체 모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소방수)가 2026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관내 산림복지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복지 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 지역은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 남원 등 관할 5개 시·군이다. 모집 분야는 숲해설과 유아숲 교육업 등 2개 분야다. 사업 수행기관은 공정성과 산림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입찰 기간은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과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forestjobs.fow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참가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41)로 하면 된다. 이번 사업 운영을 통해 숲해설가 3명과 유아숲지도사 4명 등 총 7명의 산림복지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산림교육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림복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이용자 맞춤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3일 진안을 외사양농촌체험휴양마을(마이산 에코타운)에서 '2026년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에 참여 예정인 10여 개 마을의 위원장과 사무장, 실무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설명회 개최

진안군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센터)는 3일 진안을 외사양농촌체험휴양마을(마이산 에코타운)에서 '2026년 도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에 참여 예정인 10여 개 마을의 위원장과 사무장, 실무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김경민 주무관이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참여 마을과 함께 질의 응답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환경 개선과 마을여행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센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 프로그램 기획, 홍보,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군민이 주인 되는 진짜 진안 만들겠다"

### 이우규 진안군수 출마예정자, 현장 중심 혁신 행정 강조

이우규 진안군수 출마예정자(사진)는 3일 진안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현장 중심과 혁신 행정으로 군민이 주인 되는 것이 진짜 진안 1대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우규 출마예정자는 "군민은 쉽게, 행정은 빠르게, 권한은 현장으로"라는 슬로건처럼 군민이 쉽게 행정에 다가서고 군민을 섬기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할 때 진안군의 중심이 공직이 아닌 군민이 주인 되는 것이야 강력하게 군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공개 행정을 위한 첫 걸

음으로 군수실 1층 이전과 상시 개방을 공약하며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열린 행정, 행정혁신이 군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시작점이다"고 강조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또 "군민 중심 행정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지정, 방문 민원, 대리 신청 제도를 상시 운영하는 진 반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인명 보장과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군수 직속 부패,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조금 지급자 선정 시 정성



평가보다는 정량 평가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을 단위의 사업은 주민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서 소수, 측근 위주의 관공비 방식을 배척하겠다고 말했다. 이 출마예정자 "매주 화요일에는 진짜 진안 7대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며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군민을 존중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무주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운영한다.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되며, 실제 거주하며 농촌 생활과 영농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형 프로그램이다.

군은 올해 10세대를 선정해 주택과 텃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토마토 시 설하우스 1동과 버섯 시설하우스 1동, 공동경작지 1곳에서 영농 재배 실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실습 교육과 농업 경제·경영 기초교

육도 병행해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운데 공고일 현재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접수는 오는 6일까지이며, 온라인(이메일 또는 그린데로 누리집)으로 제출하거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에 방문 해 신청하면 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 장수군, 설 명절 앞두고 '장수가꿈드림' 300세트 전달

장수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가공한 농산물과 식품으로 꾸려진 '장수가꿈드림' 300세트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장수가꿈드림'은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잡곡, 사과 등 농산물과 장수한우 곱갈비, 장수한우육개장 등 가공식품 12종의 먹거리 세트(10만원 상당)이다. 특히 '장수가꿈드림'은 장수군 지역 농가와 업체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성돼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는 동시에 지역 농가와 업체의 판로 확대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보건의료원, 동절기 마을회관 방역 소독 실시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지난 2일부터 3월 17일까지 장수군 전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동절기에는 기온 저하로 환기가 부족해지고 실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행 해충과 병원체로 인한 위생·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체계적인 방역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군은 겨울철 마을 주민들이 즐겨 찾는 마을회관 내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등 위생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장소를 집중적으로 소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역소독은 군 전 마을회관 23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휴대용 분무기를 활용해 마을회관 1개소당 총 4회의 진류 분무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 소독에는 보건복지부 안전검사를 위한 친환경 유해충구제제를 사용해 방역 후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진안군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산불 위험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동력 파쇄기를 갖춘 전문 인력이 농지에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으로, 소각 대신 퇴비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부산물 처리와 함께 농촌 환경 개선 및 자원을 순환 농업 실천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파쇄 대상은 과수 전정 가지를 비롯해 고춧대, 들깨, 참깨 등 수확 후 남은 영농부산물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월 20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지는 신청 농가 중 △산림 연결지(100m 이내), △고령층·취약층·여성농, △일반 농경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